

고 생각하는데,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도리어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실제로는 어떠한 자연현상도 없다. 방대한 우주 중에는 유형적인 생명과 무형적인 생명이 동시에 존재한다. 방대한 무형생명은 그의 작용 하에서 우주의 일체를 균형 잡고 우주의 일체를 조성하고 있다. 당신들 생각해 보라. 왜 철(鐵)의 분자는 것처럼 정연한가? 금(金)의 분자 배열은 왜 그러한가? 동(銅)은 왜 그러한가? 알루미늄은 왜 또 그러한가? 게다가 고르고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그것이 고르지 않고 정연하지 않게 배열된다면 곧 변화가 생기게 된다. 무슨 변화인가? 만약 금이 금속원소 그 분자로 배열하지 않는다면 그는 곧 다른 물건으로 변해버리는데 차이는 바로 표면상에 있다. 그럼 이 일체는 모두 규칙이 있는 것이다. 이런 규칙은 절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의 과학이 모르고 탐구해내지 못할 뿐이다. 더욱 미시적인 생명, 방대한 고급생명이 부동한 일을 하고 있고 부동한 일을 주재(主宰)하고 있으며 일체를 균형 잡고 있다.

내가 또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이전에 나는 줄곧 말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념이란 고급생명, 신이 볼 때 모두 유치(幼稚)하고 아주 가소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사람에게 개창해 준 일체 이론은 고층에 도달한

후 모두 아주 가소로운 것임을 당신은 발견하게 된다. 과학은, 지금의 사람은 지구 위에서 생존하고 있고,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공간 중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떨어져 내려갈 수 없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지구는 흡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유인력(萬有引力)’이란 우리가 발견하건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설법함은 사회인들이 듣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여기에 수련하는 제자들에게 듣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신들에게 우주의 진리, 생명, 물질이 존재하는 진실한 상황을 알려준다. 이 우주 중에, 지구의 주위에는 방대하고도 아주, 아주 미시적인 물질 환경이 있는데 층층이 물질생명으로 구성된 것이라, 사람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어 여기에서 생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부동(不同)한 층차의 미시적인 물(水)이 있는데, 당신에게 이런 한 가지 식물, 동물과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생존할 기회가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많고도 많은 요소가 있도록 하였다.

어떤 물질 그것은 사람이 지면 위에 직립할 수 있고 그가 옆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어떤 물질은 압력과도 같이 사람과 물체를 눌러놓아 그로 하여금 뚱뚱 뜨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물질은 사람의 대뇌와 기관 일체가

모두 안정되도록 보증한다. 만일 당신의 대뇌와 각종 기관이 안정되지 않으면 당신은 정상적으로 섰지만 누워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며, 또는 당신이 아무리 똑바로 서 있어도 늘 똑바로 서지 못한 것 같을 것이다. 그것은 그 지구의 회전으로 생긴 흡인력이 전혀 아니다. 당신이 한 접시 모래를 회전시키면 그것이 곧 날리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지구 이 생존의 환경을 벗어나 환경 밖에 도착했다면 당신은 곧 그 고급생명이 사람에게 유지하도록 준 이 환경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런 상태를 벗어났다. 지금 과학이 이름을 달아주었는데 ‘무중력’ 또는 ‘무중력 현상’이라고 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이 비록 무중력이어도 그 달, 그렇게 큰 물체가 그토록 멀지만 여전히 지구에 의하여 이끌리고 있다. 당신 사람이 아직 달에 가지 못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무중력일 수 있겠는가?

사람, 그는 생존하는 환경이 있고 각개 성체(星球)는 모두 거기에 놓여 있다. 바로 방대한 우주가 그것을 거기에 배치해 놓은 것이다. 마치 우리 오늘날의 강(鋼)이요, 철이요, 금이요, 그 속의 분자, 원자가 배열된 순서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자연현상이 없다고 말했다.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몽땅 ‘자연’에 귀결시키는데, 오히려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이 한마디 말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왜 모두 3천인가. 이 3천이라는 숫자는, 내가 방금 말했듯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규율이 있고 배치된 것임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또 절대적으로 다 3천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은 모두 개괄적인 숫자로서 최대한도로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제자: 우리가 법을 널리 전함이 순조롭지 못함은 열정과 방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 공부가 깊지 못한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깨달은 본성은 자연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 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부: 한 말은 맞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다.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의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 당신이 남에게 법을 얻게 하자면 당신은 그에게 이 가장 낮은, 가장 표면적인 법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가 배우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라.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잖는가. 그가 배우려면 그가 배우고, 그가 배우려 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가 배우도록 설득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를 설득하여 기어코 그로 하여금 인

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은 당신이 배우면 배울수록, 당신은 그가 더욱 진귀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가장 제고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을 많이 보는 것이다.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우리들을 가장 빨리 제고되게 하는 것이다.

시작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개 수련생은 여기에 앉아서 모두 진정하게 마음으로 들으며 진정하게 자신에 결합하여 사고하고 있는데, 이걸 대단히 좋다. 나 역시, 이번 법회를 거친 후에 우리 모두가 멀지 않은 장래에 더욱 빨리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대법의 힘, 대법회(大法會)의 힘을 빌려 더욱 빨리 제고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다음 번에 당신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더욱 크게 돌파하고, 더욱 크게 변화해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틀림없이 이리하다. 더욱더 진보하고 더욱더 원만에 접근할 뿐이다.

나는 많이 말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다. 특히 노수련생 당신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법 공부와 일의 관계, 당신 속인중의 다른 일의 관계를 바로잡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하며 하루빨리 원만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적인 사람이 되며 당신 자신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최후에는 신의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자: 主元神(주웬선)은 어느 공간에 있습니까? 그가  
동시에 각개 공간의 신체를 주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그렇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왜냐  
하면 그가 미혹 중에서 속인사회 이 미혹에 가로막힌 이 부  
분은 또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건대 이번 법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열렸다. 당  
신들이 심득체험을 말할 때 대다수 시간에 나는 다 위에서  
들었다. 내가 느끼건대 이 한 차례 유럽의 백인 수련생의  
진보가 아주 빠르고 법에 대한 이해도 아주 깊은데 이 점은  
여태껏 있어본 적이 없었는바 대단히 좋다. 다시 말해서 우  
리 이번 법회는 아주 원만하게 열었으며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번 법회를 거쳐 우  
리 지금의 수련생들에게 법 공부 붐을 조성할 수 있다. 여  
러분들은 이 법을 진귀하게 여길 것이며 동시에 또 더욱 많  
은 사람이 와서 이 법을 배우도록 할 것이며 이 법을 널리  
선전할 것이다. 당신들은 갈수록 이 법의 진귀함을 알게 되  
는데, 당신들은 끊임없는 수련과 제고 중에서 각개 층차 중  
의 법리를 알았으며, 그가 무엇인지를 당신들로 하여금 알

정에 끌려서 배우게 한다면 그건 모두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가 친구의 체면을 봐서 오는데, 그것은 가짜이며 그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에게 법을 얻게 하는 데는 무슨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규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도무  
형(大道無形)이라는 이 길을 걷기 때문이다. 법을 널리 전  
함도 역시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 사람이 배우려면 배우고  
배우지 않으려면 그만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한 요구,  
그것은 전부 당신 자신에 달려있다. 물론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心性(썬썬)이 제고되어 올라가면, 그  
외의 것은 물론 모두 사부가 책임져 준다. 心性(썬썬)이  
제고되면 사부도 당신에게 조건을 창조해 줄 것이다.

또 법 공부가 깊지 않다고 하는 문제도 아니다. 내가 가  
장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한 기간의 수련을 거친 후  
여러분은 경지와 인식 문제에서 속인과는 모두 무척 큰 차  
이가 있게 마련인데 당신이 당신의 이처럼 높은 경지중의  
말을 그에게 해준다면 효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속인이기 때문이다. 속인은 매일 주식에 주목  
하며, 다른 사람과 암투를 벌이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  
여 서로 빼앗고 조금만 얻어도 기뻐서 야단인가 하면, 조금  
없으면 고통스러워 야단이다. 속인 중에서 제멋대로이고 칠  
정육욕이 구전(俱全)한 이것이 바로 속인이다. 만약 당신

이 속인에게 아주 높은 수련의 일을 말한다면 그의 관념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당신이 그에게 단지 이 대법의 글자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내포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보게 하라. 내가 생각하건대 그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제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근시는 부정확한 상태이다, 안경을 쓴 사람이 안경을 벗어도 괜찮다고 건의합니다. 이러면 가히 소업(消業)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통일적으로 하지 말라. 나는 무슨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도 하지 말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가 수련할 적에 어떤 면의 업력, 그것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게 개변해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곧 그리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이 면에서 단지 일반적인 업력이라면 아주 빨리 없앨 수 있고 안경을 쓰지 못하게 된다. 안경을 쓰면 아른거리기 시작하는데, 즉시 내려놓으면 괜찮아지고 정상적인 눈과 같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더는 안경을 끼 수 없고 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건대 저번에 내가 뉴욕에서 설법을 마치자마자 우리

사부: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주중의 법리와 그의 진실한 정황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물은 절대 천국으로 갈 수 없다. 만일 천국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사람으로 전생되고 다시 수련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사람도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사람 역시 수련해야만 된다. 그럼 천국 세계 속에 동물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건 모두 온순하고 착한 것인데 코끼리, 사자가 있는가 하면, 또 용(龍), 봉(鳳)이 있다. 인류의 동물과 비할 수 없다. 그들은 신이다. 마치 동방에서 신앙하는 용과도 같다. 그 외의 생물이나 동물도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는 모두 그 한 층의 공간에서 생긴 것으로서, 법이 그 한 층 생명에게 창조해 낸 것이며 그 한 층 고급생명의 환경을 변형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또 지상에서 올라간 것도 있다. 그러나 수련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다. 어떤 부처의 세계에도 동물이 있다. 어떻게 올라간 것인가? 그는 그의 다른 방법이 있다. 예컨대 부처가 초도(超度)하여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지상에 있을 때 동물인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이러한 신의 일을 더는 생각하지 말라. 사실 당신의 수련과 관계가 없다. 수련 중에서 당신의 좋지 못한 사상을 다그쳐 제거하고 초상(超常)

제자: 신부와 수녀들에게 대규모로 『전법륜(轉法輪)』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사부: 사실 나는 그들을 모두 속인으로 간주한다. 그들이 정말로 수련해야만 신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아직도 사람이다. 평범하고도 평범한 사람이다. 다만 일이 다를 뿐이다.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본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필경 수련과 관계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종교라는 장애가 있다. 그들은 원래의 종교를 고수할 것이고 그들의 종교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이 대법을 얻는 데 최대의 장애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법리를 알려줄 방법도 없다. 우주의 이처럼 큰 법에 대해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또 한 가지 최대의 장애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책마저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곤란하다. 이것은 그들의 최대의 장애이다. 이 장애력을 제거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당신이 그들에게 말해 보라. 그들이 들을 수 있다면 곧 들은 것이고 그들이 듣기를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다.

제자: 동물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면 천국에는 마땅히 동물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결론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련생이 법을 다 들은 후, 옆 사람이 손을 휘둘러 그의 콘택트렌즈(바로 눈 속에 끼는 그 안경)를 떨어뜨렸다. 떨어져서 깨졌는데도 눈은 상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곧 그에게 눈이 이미 좋아졌다는 것을 알려준 셈이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하고 한사코 다른 한쪽 렌즈를 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쪽의 안경을 쓰지 않은 눈의 시력은 안경을 쓴 것과 같이 물건이 아주 뚜렷이 보였다. 아주 뚜렷해졌고 시력이 이미 아주 좋아졌는데도 그는 아직도 한쪽의 안경을 쓰고 있다. 그는 두 눈이 차이가 있으며 불편하다고 느꼈다. 이는 곧 안경이 교정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는 마땅히 벗어버려야 했다. 그는 벗어버리지 않고 한사코 쓰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절반만 깨달아 이 눈은 안경을 쓸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불편하게 아직도 이쪽 것은 쓰고 있는데 사실 다 나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의 눈이 근시인 것이 또 다른 복잡한 요소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수련함에 따라 천천히 그에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빨리 벗어버리지 못한다. 만약 그 자신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안경을 썼다가 연공한 후 곧 벗었는데 나도 벗어야겠다, 또는 나는 반드시 벗고야 말겠다, 벗지 못한다 해도 나는 역시 벗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마 그의 생활과 사업에 모두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그것은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마음이 있으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만 그는 곧 불편하지 않는가. 그가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또 아마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역시 안 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면에도 부동한 상황에 근거하고 부동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당신의 수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병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견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안경을 쓰고 책을 볼 수 있으며 연공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의 수련에 영향 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문제를 특수하게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억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

제자: 법 공부를 할 때 갑자기 한 가지 이치를 알게 되는데, 心性(썬썬)이 이 한 층에 도달하면 이 한 층의 불(佛)·도(道)·신(神)이 이 한 층의 지혜를 열어주는 것입니까?

사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으나 공은 사부에게 달렸기에 실질상 그 일체는 다 당신이 한 것이 아니며 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우리 어떤 사람은 대법수련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세계 만물은 모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전세에 한 일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자신이 식물 또는 동물이 되었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까?

사부: 그것은 당신이 듣지 못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 역시 아주 많다. 전세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머리를 깨끗이 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생할 때 그를 잘 씻지 못했거나 혹은 기억부분을 잠가둔 것이 견고하지 못해 일부 것이 남겨졌는데, 그에게는 전세의 기억이 있을 수 있다. 식물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예전에 중국에서 수련반을 꾸리고 설법할 때, 10일 동안의 학습과 수련을 거친 후 수련생들이 심득체험을 써서 나에게 보였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일을 말했다. 그는 그가 어떤 식물에서 전생하였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그것 역시 그의 진정한 생명 형상이 아니라 그의 그 한 세 중의 형상일 뿐이다. 그가 도대체 무엇인가, 윤회왕생(輪廻往生)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든 다 전생되는 것이다. 당신의 元神(웬션)이 무엇인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진실한 형상이다.



있는 것이다.

만약 한 사람, 그가 아직 청성(淸醒)할 수 있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며, 그가 냉정해 있을 때라면 당신이 그에게 책을 주어 보게 하라. 만일 그가 볼 수 있으면 어쩌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전에 법을 범한 어떤 사람도 우리 대법 중에서 수련하여 좋게 되었다. 또 마약을 흡입하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서 연공하자 그는 마약중독이 없어졌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절대 마약을 흡입하는 사람을 우리 여기로 데리고 와서 소독(消毒)하려고 하지 말라. 당신은 우리 대법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주는 데가 아니다.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함은 그 자신이 해낸 것이라 그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 우리 대법의 위력은 무궁하다.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수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수련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더러운 신체와 사상을 갖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을 정화(淨化)해 준다. 그럼 다시 말해서 당신은 신체가 좋아지고 병이 없어지거나 혹은 불량한 습관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낄 것이다. 그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수련을 위해 이렇게 한 것이지 사람의 병을 치료하거나 소독(消毒)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에서 책을 백여 번 본 사람도 있다. 그는 볼수록 그 속에 있는 것이 더욱 많으나 글자 표면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 그는 이처럼 고심한 이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그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사실상 바로 글자의 배후에 무궁무진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층차 중에 이르렀고 당신이 어느 한 층으로 수련되어 마땅히 당신으로 하여금 어느 한 층의 이치를 알게끔 하였을 경우, 당신이 그 줄의 글자를 보게 되면 당신은 갑자기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배후의 불(佛)·도(道)·신(神)이 당신에게 마땅히 이 한 층의 이치를 알게끔 하려하면 그가 당신에게 귀뜸해 준다. 때문에 당신은 그 순간에 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상태를 당신들은 주의하지 못하는데, 당신들이 그 한 층의 이치와 그 한마디 말의 이치를 알게 됨에 따라, 당신의 신체에는 다른 반응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진동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정수리가 뜨거워지며 단번에 발바닥까지 관통함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신체가 팽창하는 일종 열류(熱流), 일종 격동과 유사한 감각, 부동한 감각이 다 있다. 그때에 전체 정황의 변화는 아주 크다. 그러나 사람의 가장 큰 한 층 분자로 구성된 신체의 표면에 접수될 경우에는 몹시 약하다. 때문에 그것은 단지 이런 감각일 뿐이다.

그러나 당신 신체의 더욱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신체  
의 그 한 부분에 생긴 변화는 매우 크다. 그건 정말로 환골  
탈태(脫胎換骨)적인 변화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한 층  
차 중으로 들어가려고 하므로, 당신은 반드시 요구하는 바  
의 그 한 층차 중의 생명의 신체 표준과 사상경지에 부합되  
어야 하는데, 바로 이처럼 큰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당신  
이 신체적인 표면으로 전도되어 왔을 때는 몹시 약하다. 왜  
냐하면 우리들이 본질상에서, 생명의 가장 미시적인 수련  
중에서 당신의 신체를 개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잘 수련된 그 한 부분과 당신이 잘 수련되지  
못한 그 한 부분을 떼어놓는다. 보건대는 마치 일체(一體)  
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간이 떼어진 것으로 연계가  
없다. 또 절대적으로 연대(連帶)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  
요한 부분은 다 연대되지 않는다. 최저한도로 표면신체의  
잘 수련된 그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당신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므로  
당신은 아직도 속인의 행위가 있으며 속인중의 각종 욕망적  
인 행위가 있다. 심지어 속인적인 각종 말을 하고 신으로서  
말하거나 일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의 잘 수련된 그 부분이  
따라서 말하고 또 사람의 신체를 따라 사람의 일을 한다면  
이는 신이란 이 한 부분의 자격이 없고 이 한 부분 역시

않을 것이고 생활의 질이 같지 않는가 하면 또 수련하는 사  
람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소업함을 말하자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왜냐하면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업력에 다  
른 사람의 업력을 가한다면 아마 며칠 살지 못하고 죽을 것  
이다. 업력이 너무나 크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내가 당신들에게 고층차의 것을 말해 주어도 당신들  
은 흔히 사람의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자식이 좋지 못하게 변함을 말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그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자식은 이미 나이가 들어  
그는 아예 듣지를 않는다. 그가 어렸을 때 당신이 엄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그를 방치했다면, 그는 자라서 필연 타락  
하게 되는데, 내 생각에 다시 단속하기가 너무 어렵다. 만약  
그가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그가 듣기를 원하는 상  
황에서 그에게 선의로 충고해 주고, 만약 그의 심정이 괴로  
워 보일 때면 당신은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말을 해  
봐도 하지 않은 것이나 같다. 당신은 또 화만 발끈 동할 것  
이다. 그럼 실로 단속할 수 없다면 이것 역시 당신 탓이 아  
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잘 교육하지 못했으므로 여전  
히 책임이 있다. 이 점은 틀림없다. 만약 인류의 다음 한  
세대가 이처럼 발전하여 내려간다면 앞 세대 사람에게 죄가

로 전생되며, 최후에는 화멸될 수 있다.

제자: 사부님께선 다른 사람의 업력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의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역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21세 되는 자식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만 그에게 책임감이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사부: 나는 먼저 당신의 앞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절대 개변시킬 수 없다. 바로 당신의 일생도 당신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일생은 더욱 어떻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도 그는 모두 그 자신이 생존하는 그 길로 간다. 당신은 마치 노력을 거쳐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필연이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노력 역시 당신의 자연적인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때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자식을 교육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식이 잘 교육받지 못해 나쁜 짓을 했을 때, 업력에는 어른의 한몫도 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교육할 방법이 없는 건 별개의 일로서 일체는 다 잘 배치한 것이다. 왜 여전히 교육해야 하는가? 만약 좋은 사람으로 교육시켰다면 다시 큰 업을 짓지

사람이다. 이 이치가 아닌가.

우리들은 당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잘 수련되지 못한 부분만 속인 중에 있게 하고, 잘 수련된 그 부분은 움직이지 못하게 보전한다. 당신의 어떤 행위도 다 그쪽의 사상을 교란해서는 안 되고, 그쪽의 신체를 교란해서는 안 되므로 그것을 떼어놓는다. 우리는 이 방법을 취한다. 당신이 속인 중에 있기에 사업하고 공부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또 수련할 수 있게, 당신의 원만(圓滿)을 이룬 그 부분을 계속해서 떼어놓는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사상 중에 아직도 좋지 못한 사상, 심지어는 더욱 더러운 사상이 반영되어 나온다고 말한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표면에까지 수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또 억제하고 그것을 배척해야 한다. 이것이 곧 수련이잖은가. 그러나 만약 당신의 신체가, 그렇게 큰 부분의 신체가 이미 잘 수련되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조그마한 부분이, 비단 하나의 인체 세포일지라도 삼계 밖 그 경지(삼계 외는 바로 나한이다. 나한경지에 도달한 그 세포)에 도달했다면, 그는 당신의 전체 몸을 다 주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신체의 다른 부분은 모두 삼계 내의 것으로서 아주 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고급생명이다. 그가 아주 강하기에 그가 당신의 전체 사상을 주재할 수 있다. 당신의

일체 언행은 모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다 신의 행위이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장기간 수련해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사실상 바로 우리가 그를 갈라놓아서다. 그러므로 당신은 도달하지 못한다. 당신이 정말로 도달하려 한다면, 내 말은, 만일 오늘 당신들을 모두 열어놓는다면, 지금 단계 이 정도에서 당신들을 지구 위에 놓아둘 수 없는데, 사람마다 모두 신통이 광대해서다. 석가모니가 개오(開悟)하는 그 순간에 진동이 있었는데, 당시는 지진이나 산사태, 해일로 간주했다. 아주 큰 범위의 지역이 모두 진동했다. 사람이 이처럼 많은데, 당신이 생각해 보라. 지구로서는 당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의 신체는 무한하게 클 수 있는데, 당신이 있는 층차 중에서 무한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 말은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말해 당신이 이만큼 높게 수련되어 당신이 제1층 하늘로 수련되었다면 당신의 신체는 제1층 하늘 그만큼 크게 확대될 수 있고 또 아주 작게 축소될 수도 있다. 우리 지금 이 사람의 육신은 분자의 가장 큰 한 층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는 영성(靈性)이 없다. 때문에 그를 보면 고정적이다. 사실 그것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당신 신체의 분자 역시 운동하고 있다. 대형 확대경 하에서 본다면 당신의 신체는 마치 모래와도 같고 그 속의 분자는 다 꿈틀거리고 있으며 다 운동하

리는 시간이 짧다. 무엇 때문인가? 가령 우리가 인류사회로 전생할 때는 흔히 한 군체(群體)로 온다. 당신 마음대로 그곳에 전생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한 군체로 전생한다. 이 군체 사이는 전 한 세에 서로 사회적인 연계가 발생하였고 다음 한 세에 여전히 또 그로 하여금 사회적인 연계를 발생하도록 한다. 흔히 당신의 이 군체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마치 국외인(局外人)과도 같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런 감각을 가지는데, 마치 사회상의 일부 사람은 당신과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 사람은 마치 늘 당신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당신의 국내지인(局內之人)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군체가 전생할 때 흔히 그들이 함께 전생한다. 하지만 반드시 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또 왈자하게 한꺼번에 다 오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먼저 오고 그가 후에 오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다. 온 후에는 그가 전세에 그에게 진 빚을 이 금생에서 갚는데 바로 그러한 일이다. 당신이 전세에 그에게 좋은 점을 주었다면 이 금생에서 당신이 그의 구제를 받으며 그가 복으로 보답함을 얻는데 그건 바로 이러하다. 이것은 업력이 크지 않은 사람의 전생과정 중 일부 일이다. 업력이 아주 큰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사람으로 전생되는 것이 아니다. 식물, 동물, 마지막에는 물질

때 진회가 절에 들어왔는데, 그는 빗자루로 진회의 몸을 향해 쓸고, 흙도 그의 몸을 향해 쓸었다. 하도 쓸어놓아 마침내 진회는 화가 났다. 그는 재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이 승려를 붙잡으라고 하였다. 그가 보니 이 승려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신이 그가 미쳤다고 하지만 그의 표현형식이 미쳤지 사실은 미치지 않았다. 그는 사실 아주 이지적이다. 과거의 수련방법은 아주 기괴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는 이 길을 걷게 할 수 없다. 정말로 모두 정신이 나가버리면 내가 보건대 이 사회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그 역시 수련상태가 조성한 것이다. 진(秦)이란 바로 진회이다. 바로 악비(岳飛)를 죽인 그 진회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수련이야기이다.

제자: 시간이 얼마나 있어야 전세(轉世)될 수 있습니까?

사부: 아, 당신은 죽은 후에 그곳에서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서 전생하는가를 말하는데, 당신은 상관하는 것이 좀 너무 많다. 그런 일은 모두 전생을 책임지고 세간(世間)의 일을 책임지는 그런 구체적인 신(神)이 배치하는 것이다. 모두 그들이 하고 있는데 사람의 정황과 업력의 상황에 근거하여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상황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주 길게 걸려서야 전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

고 있다. 당신의 눈도 분자 이 한 층으로 구성된 것이다. 때문에 당신은 보지 못한다. 왜 석가모니는 것처럼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의 눈은 부처의 눈이라 상당히 높고 상당히 높은 물질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물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제자: 무수한 층차 및 더욱 높은 경지 중의 불(佛)·도(道)·신(神)은 사부님의 지혜 형상의 그 한 층차 중의 구체적인 체현입니까 아닙니까?

사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당신이 수련되었어도 당신은 역시 당신이다. 하지만 방대한 법과 법이 만들어낸 우주로 말하면 당신 역시 우주의 일부분이다. 사람의 신체는 당신이 보건대 그것이 완전한 사상과 이 입이 말하고 있지만 당신이 신체는 무수하고도 무수한 세포로 구성되었으며 또 무수하고도 무수한 세포로 조성되었고 분자가 세포를 조성하였는가 하면 또 더욱 미시적인 무수하고도 무수한 입자가 분자를 조성하였다. 이걸 당신이 그것의 이러한 것이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런 입자는 다 당신의 일부분이다. 내가 말하는 부동한 공간 중에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신체는 별개의 일이다. 당신의 세포는 당신의 손과 발처럼 이렇게 크게 운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런 경지 중에서 역시 똑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경지 중에서 아주 미시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므로 그것이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뿐이다. 때문에 마치 당신의 신체의 일체, 일체가 다 당신 자신이 지배하고 당신의 主意識(주이스)의 지배하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신들은 또 이 우주 전체의 일부분이고 이 우주는 이 법이 구성한 것이다. 바로 이런 관계이다.

제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독(通讀)도 하고 또 책을 암송도 하려고 하지만 책을 암송하면 통독에 영향 준다고 느낍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놓아야 합니까?

사부: 당신이 통독할 때 당신의 제고에 대하여 그건 무척 큰 좋은 점이 있다. 만일 책을 암송하려 한다면 당신은 다만 특정한 시간을 내서 공력을 좀 들여 암송해 내도록 하라. 이후에는 책을 들지 않아도 통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을 집중하여 그를 암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통독하려 하면, 또 암송하려 하고 또 통독하려 할 것인데, 늘 이런 생각이라면 그럼 늘 이렇게 당신이 암송하면 통독에 영향주지 않을 것이다. 영향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독할 수 없다 해서 제고될 수 없는 것은 아

가 더럽고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이젠 그 가장 더럽고도 가장 더러운 곳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배의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가장 더럽고도 가장 더러운 곳으로 처넣을 것이다. 당신이 말해보라. 이때 아직 한 가닥 지각이 있으므로 더러움을 아는데, 그것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거기에서 영원히 있게 되며 영원히 빛을 볼 날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무서운 일이다! 석가모니는 이 한 지경까지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지옥만 말했고 18층 지옥의 일을 말했다. 매 한 층 지옥은 매 한층 지옥에 비하여 고통스럽다. 언젠가 나는 말했다. 사람이 대법을 파괴한 죄는 18층마저도 담지 못한다고. 당신들에게 대단히 무서운 일 하나를 말했다!

제자: 저는 행운으로 사부님의 저작을 번역하는 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 중에서 ‘풍승소진(瘋僧掃秦)’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이름입니까 아니면 전고(典故)입니까?

사부: ‘풍승소진’이란 이 전고가 있다. 이야기는 중국 항주 영은사(靈隱寺)에서 생겼다. 남송 시기 진회(秦檜)라는 간신이 항불을 올리려고 절에 왔다. 한 승려가 빗자루로 간신 진회에게 한바탕 쓸어 붙였다. 그가 땅을 쓸고 있을

를 전부 다 죽여 버린다. 죽인 후에 그는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이 한 층을 떠나버림에 불과하며 더욱 미시적인 생명은 아직 존재한다. 그럼 더욱 미시적인 생명 역시 동시에 다시 죽여 버린다. 한 층 한 층의 죽이는 과정에서 그는 또 업을 갚아야 한다. 어떻게 갚는가? 없애지는 고통 속에서라든가, 일체 벌을 받는다든가, 마치 그 지옥 속에서 시달림을 겪을 대로 겪는 것과 같이 별장계 달군 철판으로 지진다든가, 어쨌든 일체가 모두 고통 속에서 갚으며 그런 후에 층층으로 죽여 버린다. 죽어버린 다음 당신의 생명은 아직 종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더욱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층의 생명은 이어서 또 감당하고 또 죽여 버리고, 그런 다음 더욱 미시적인 신체 그가 이어서 또 감당하고 또 죽여 버린다. 줄곧 깡그리 소멸될 때까지 그 고통이란 가장 무서운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어디 것처럼 쉬울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한 나쁜 짓을 갚아야만 결말을 지을 수 있다. 그 결말을 짓는다는 것도 역시 결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없이 더러운 — 우주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처박는다. 인류의 가래, 신은 모두 인류의 가래가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을 가래통 속으로 던져버린다. 당신은 환자의 가래

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책을 암송할 때 매 한 글자의 배후에는 모두 무궁무진한 불(佛)·도(道)·신(神)이 있으므로 매 한 글자는 다 당신에게 부동한 층차의 이치를 알게 할 것이다.

제자: 저는 나치 표지를 본 적이 있는 세대의 사람입니다. 왜 하필 이 표지가 그에게 도용(盜用)당했습니까? 우리들은 이 표지의 진정한 의의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부: 여러분 알다시피 불가의 이 “만(卍)” 자를 불교 중에서 인식한 것은 석가모니시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2,500여 년이나 된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나치시대를 훨씬 벗어난 것이다. 듣건대 어떤 사람은 희랍문화 중에서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럼 또 불교를 1,000여 년이나 훨씬 넘게 벗어났다. 다시 말해서 그것의 역사는 상당히 긴데, 이것 역시 단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그것은 부처의 것이다. 부처는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시간(지상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 때문에 그의 이 부호는 천체, 우주 중에서 무척 오래된 것이다. 우주 중에서도 오래된 것인데, 하물며 인류의 시간이라!

그럼 나치는 왜 그것을 썼는가? 내가 말한 적 있지만 어떤 우연한 문제도 없고 자연적인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백인사회에서 아주 민감하다. 나는 단지 나의 대법제자에게 설법할 뿐이지 사회상의 속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속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의 수련을 책임지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생긴 일체 일, 바로 인류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체 일은 다 우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의 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일찍이 부패되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되도록 그로 하여금 윤회(輪廻)중에서 다시 되돌아옴으로써,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끝내 훼멸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끊임없이 소업(消業)해 주었는데, 이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다. 신은 사람에게 소업해 주는 동시에 또 이 사회, 물질, 일체 생명에게 소업해 주었다. 일부 물질은 모두 업력이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다 죽었다면 업력도 그의 생명을 따라간다. 그럼 그는 내세에 사람으로 전생되지 못하고 그는 한 그루 나무로 전생된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곧 업력이 있는 것이다. 그가 동물로 전생된다면 그 동물 역시 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가 물질로 전생되었다면 물질 역시 업력이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건대 만약 이 세계를 당신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곳곳이 세차게 밀려오는 업력이라, 당신은

것과 같아 당신의 진정한 자신은 그리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신체의 껍질에서 나올 때, 당신은 당신이 가뽀함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의 대뇌 억제를 받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사상 전체가 다 개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간 후 속인의 그 공간의 시간도 변이(變異)가 발생한다. 마치 잠을 깬 것처럼 당신은 갑자기 당신 일생에서 한 일이 눈에 역력하다. 매 한 건의 작은 일마저도 마치 금방 한 것과도 같이 것처럼 뚜렷하여 단번에 대뇌가 다 해방되었다. 당신이 한 좋은 일과 나쁜 짓을 당신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이 속인 중에서 한 일을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다시 전생되어 나와 다시금 나쁜 짓을 한다면 여전히 안 된다. 신이 생명을 보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당신의 일생만을 보지 않는다. 당신 이 생명이 무엇을 했든지 모두 갚아야 하는데 이 이치이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럼 훼멸된다면 그건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만일 형신(形神)이 모두 전멸(全滅)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소멸하는가? 곧 이 사람의 일생중의 유형적인 생명을 죽여 버리고 소멸시킨다. 신체를 죽이는 순간에, 이 동등한 경지 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元神(웬선)이며 당신의 모든 영체(靈體)



이 있는데, 당신이 수련하려고 한다. 삼계 내의 것처럼 많은 생명 그는 다 정과(正果)를 얻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원한이 있고 당신이 어느 한 생 어느 한 세에 그에게 빚졌던 것이라면, 그는 정말로 와서 복수하며 정말로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하지 못하게 하는데 각종 방법을 취하여 당신을 교란한다. 심지어는 어떤 이상한 일을 만들어 당신에게 겁을 준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을 안정시켜야 한다. 당신이 이미 수련하였는데 겁날 것이 무엇인가? 정정당당하게 수련하라. 하물며 당신이 수련하는 것은 정법인지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이런 사문왜도(邪門歪道)의 것, 그것이 교란하고 교란하다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곧 가버린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영향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전법륜(轉法輪)』 중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자: 무엇이 사람의 형체와 영혼이 전멸(全滅)되는 것입니까?

사부: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무서운 일로서 대단히 무섭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들은 그 무서운 정도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데 그야말로 무섭다! 사람은 사람에게 일생만 있다고 여긴다. 사실 사람은 이 일생 중에 마침 잠을 자는

여기에서 생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럼 만일 사람이 업력이 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은 직접 인간 세상으로와 사람에게 소업해 줄 수 없다. 소업은 무조건적일 수 없다. 이 우주에는 이치가 있는바, 신은 우주의 이치를 수호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우주에 한 가지 이치가 있는데 무엇인가?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얻으면 곧 잃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당신이 남에게 소업을 해주려면 이 업력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없애주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곧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된다. 많아지면 그것을 십악불사(十惡不赦)라고 한다. 십악불사하면 곧 휘멸하게 되는데, 이 생명이 곧 휘멸되는 것이다. 다시는 그를 생존하도록 하지 않으며 완전히 휘멸해 버린다. 그럼 당신이 인류를 보호하려는 그런 것에 따라 그에게 소업을 해주면, 당신 사람은 업력을 갚는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어떤 고통인가? 천재(天災), 인화(人禍)와 질병을 감당한다. 사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겠다.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병에 걸리지 않으면, 죽은 후 100퍼센트 지옥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서 업을 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다. 그가 업을 빚고서도 끝내 업을 갚지 않는다면 사람은 곧 위

힘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병을 얻을 것이고 재난을 당할 것이다. 대규모적인 사람에게 업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곧 지진, 화재, 수재 심지어는 전염병과 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

전쟁 여기까지 우리는 말하게 되었다. 그럼 더 말해 간다면 문제는 아주 첨예해진다. 사실 내가 말한 것은 우주의 진실한 이치이다.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이르러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세계상에는 어떤 우연한 일이 없다. 내가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또한 속인사회에 영향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당신들 수련인을 책임질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말하고 그치겠다. 나는 당신들 스스로 분석하게 하자고 생각한다.

제자: 우리가 연공하는 곳에서 늘 다른 공파(功派)의 사람이 우리를 교란하는데요.

사부: 정법수련에 만일 당신을 교란하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수련성취하지 못한다. 만일 당신에게 시끄러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 心性(심성)을 제고시킬 환경이 없으며 당신이 곤란에 부딪히지 않으면 당신은 수련성취할 방법이 없다. 바로 이런 이치이다. 그러나 우리 어떤 수련생은 흔히 이런 교란을 받으면, 그것을 모두 우리 이 대

법으로 저지한다. 그는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그는 대법에 의거하여 저지한다. 예컨대, 그가 와서 우리 법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는 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자신의 원인을 찾지 않는다. 우리들이 어디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자신은 어디에 잘못하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거나 또는 우리를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사실 외부인은 영원히 법에 영향주지 못한다. 그러한 일은 모두 우리 수련생의 제고를 겨냥하여 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어떤 지역의 두 방면의 수련생이 쟁투하기 시작했는데, 당신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의 마땅히 제고해야 하는 그런 환경으로, 자신의 차이점을 찾는 좋은 기회로 여기지 못했다. 그리하여 모순이 돌출되게 하였다. 최후에는 속인과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다. 당신들은 최소한 그 한 가지 문제에서 모두 속인의 그 경지로 떨어졌다. 때문에 장래에 또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당신들에게 반드시 이 한 고비를 넘기도록 한다. 떨어져서는 또 안 되며 기어코 넘겨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수련을 말함은 바로 이런 일로서 어느 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아도 다 안 된다. 당신이 보라. 만약 우리들이 정말로 어떠한데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가 스스로 갈 것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다. 우리 사람 자신은 업력